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갖 세상의 일들로 들떠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 주시고,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불안해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연평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연평도 주민 모두가 속히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 이상 전쟁의 포성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이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8:11,12 .....	인도자
♠ 교 독 문 .....	116. 구주 강림(2)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광권희 권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98. 예수님 오소서 .....	다함께
성경봉독 .....	I. 계6:9-17 .....	김지원 학생
	II. 눅7:24-28 .....	김금순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대림절의 두 가지 의미 .....	김재홍 목사
	II. 들사람 열사람 .....	김기석 목사

- 찬 양 ..... 445(통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다함께
-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혼곤한 안락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정신의 쫓대를 바르게 세우고 사십시오. 온전히 개인 정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흐릿한 정신으로 일신의 안락만을 갈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영혼을 짓누르던 일상의 묵은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가벼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2남선교회, 3·4여선교회 주관예배	시편묵상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송동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장성호 선생	손여진 학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박석희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정한구 최숙화 박효선 홍복선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우리도 겨울잠을 잘 수 있다면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추울 것 같다. 구조조정이니 파업이니 하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기름값이 치솟아 연탄을 때는 집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니 말이다. 비닐하우스의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하루에 무려 천 장이 넘는 연탄을 간다고 한다. 춥고 긴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들의 겨울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 기온이 뚝 떨어져 먹을거리를 찾기 어려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는 동물들이 있다. 철새들이 그 대표적인 동물들이다. 가을은 말만 살찌는 계절이 아니다. 철새들도 몸속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먼 여정을 떠날 수 있다.

나는 이맘때면 가끔 엉뚱한 꿈을 꾸다. 우리도 철새들처럼 철 따라 이동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들이 협약을 맺어 서로 철 따라 세 들어 사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면 가족끼리 해보면 어떨까 싶다. 여름에는 어느 호주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살고 겨울에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못할 일도 아니다 싶다. 하지만 그건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라. 그 옛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철 따라 안주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철새들 중에도 꼭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한 곳에 눌러앉는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분명히 철새였던 새들이 텃새가 된 경우가 관찰된다. 지구 온난화 덕분에 겨울이 예전처럼 춥지 않고 인가 주변에는 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먼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새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역마살이 덜한 동물들 중에는 긴 겨울을 아예 잠으로 때우는 것들이 있다. 흔히 동면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사실 꼭 겨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열대의 동물들은 우기를 기다리며 건기 내내 ‘건면’을 한다. 아프리카의 개구리 중에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아직은 물렁물렁한 땅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도 있다. 비가 오기까지 어떨 때는 몇 년씩 기다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신진대사율을 최저로 하고 그냥 버티는 것이다. 겨울잠을 자는 곰도 사실 오랜 겨울 내내 온전히 꿈나라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 버티기 힘들거나 어쩌다 날씨가 풀리면 잠에서 깨어나 먹을 것을 찾아나서기도 한다.

많은 동물들이 하루 중 주기적으로 신진대사율을 높였다 낮췄다 한다. 도마뱀과 같이 외부 온도에 맞춰 체온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변온동물들은 밤에는 엄청나게 낮은 신진대사율을 유지하다, 해가 떠서 기온이 올라야 서서히 활동을 시작한다. 한낮에는 매미 잡기가 어려워도 이른 새벽에는 아직 체온이 오르지 않아 꼼짝도 하지 못하는 매미들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 나 역시 방학 숙제로 곤충채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새벽에 많은 곤충들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주워 담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많은 곤충들은 생활사의 일부로 아예 '휴면(diapause)'을 한다. 날씨가 으슬으슬해지면 군고구마, 군밤, 그리고 오징어와 함께 서울 밤길의 냄새를 책임지는 번데기도 바로 휴면 중인 누에나방이다. 뽕잎을 갉아먹던 애벌레 시절에서 성충인 나방으로 변신하기 위해 와신상담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 휴면기간이 반드시 겨울일 필요는 없다. 애벌레에서 바로 성충이 되는 곤충들이라면 모를까 번데기 시기를 거쳐야 하는 곤충들은 다 일정 기간 휴면을 한다.

온대지방의 곤충들은 번데기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다. 알의 상태로 겨울을 나는 곤충들도 많다. 겨울이 되면 길거리의 가로수들이 지푸라기 옷을 입는다. 새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어미 곤충들의 모성애를 이용하는 어찌 보면 참 야비한 전략이다. 많은 곤충들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우리는 이른 봄에 그 지푸라기들을 걷어 불에 태운다. 동면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못한 가족들을 몽땅 몰살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임의로 신진대사율을 역치(閾値) 수준 이하로 낮추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신진대사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도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쉴 때는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 다만 동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뿐이다.

요사이 기름값이 하도 올라 이번 겨울에는 아예 비닐하우스를 단거나 배를 띄우지 않기로 작정한 농어촌 사람들의 겨우살이가 동면과 무에 그리 다를까 싶다. 우리도 스스로 신진대사를 낮출 줄 아는 동물이라면, 이 슬프도록 긴 겨울을 그냥 잠이나 자며 보내련만.

## 시래기 한 움큼

공광규

빌딩 숲에서 일하는 한 회사원이 /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겨졌다  
 점심 먹고 식당 골목을 빠져나올 때  
 담벼락에 걸린 시래기 한 움큼 빼서 코에 부비다가  
 식당 주인에게 들킨 것이다 / "이봐, 왜 남의 재산에 손을 대!"  
 반말로 호통치는 식당 주인에게 회사원은 /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막무가내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고  
 떡살잡이를 하다가 파출소까지 갔다  
 화해시켜보려는 경찰의 노력도 / 그를 신입하는 동료들이 찾아가 빌어도  
 식당 주인은 한사코 절도죄를 주장했다  
 한몫 보려는 식당 주인은 / 그 동안 시래기를 엄청 도둑맞았다며  
 한 달치 월급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시래기 한 줌 합의금이 한 달치 월급이라니! / 그는 야박한 인심이 미웠다  
 더러운 도심의 한가운데서 밥을 구하는 자신에게 / 화가 났다  
 "그래, 그리움을 흠뻑다, 개새끼야!"  
 평생 주먹다짐 한 번 안 해본 산골 출신인 그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미운 인심에게 / 주먹을 날렸다  
 경찰서에 넘겨져 조서를 받던 그는  
 찬 유치장 바닥에 뒹굴다가 선잠에 들어 /  
 흠뻑에 매달린 시래기를 보았다  
 늙은 어머니 손처럼 오그라들어 부서력거리는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우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곽상준  
 최경미 김경연 김용진 박효선 김일랑 이은옥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정복순 최종원 이건식 신영신 정재영 김정애B이지혜 양재성 임미심  
 이광용 형인순 오진훈 노순옥

###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순자 김종철 고영애 박범희 박미영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이은자 이재구 황선희  
 장재영 김재영 조순덕 황경순 황자순 황원순 정완수 김재광 이수정  
 배재경 임영 정경례 서지은 전영규 김경수 백성래 문홍일 이미혜  
 이경남 ET KS

### 감사헌금:

김대규 김남종 오복순 최의명 최선미 김종락 박영신 조관행 홍선희  
 권혁신 김정우 최선미 전영 김종철 문홍일 이미혜 곽새롬 우순덕  
 무명4

### 녹색꿈 헌금:

최경미 안종일 정현주

### 생일감사헌금:

임미심

숙명	인도자	숙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영희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야외	이은옥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송양진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선	임창선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 주취예배입니다. 2남선교회와 3,4여선교회가 주취합니다.
2. **수요집회** : 12월 수요집회는 '시편을 거닐다' 라는 제목으로 손성현 전도사가 인도합니다.
3. **주방봉사 및 설거지 신청** : 2011년 설거지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4.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뀐 분은 '수정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하늘양식 신청** : 2011년 가정예배서 '하늘양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당회** : 2010년 당회가 다음 주일(12일) 오후2시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7. **세례입교교육** : 세례입교 1차 교육이 예배 후에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이시기 바랍니다.
8. **교회김장** : 교회 김장을 담급니다. 12월 8일(수)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9. **자전거 발전기** : 김대규 교우가 자전거 발전기를 기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성탄 장식** : 교회 성탄 장식을 이번 주 토요일(11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1. **신앙실천** :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 한번 촛불을 밝히고 기도해보십시오.

\* 떡과 커피 대접 : 우순덕 사모님 (어머니 장례)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다음 주 : 시온 속)

\* 설거지 봉사 : 박시내 이성범 이광욱 (다음 주 : 전충길 남창모 정희은)

\* 새교우 : 유상영(4남) 박도연(7여) 이정은(8여)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